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주의 택하신 일꾼을 보이시옵소서”

오늘 찬양예배 후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제 6대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의회에서는 7명의 장로를 선출하게 되며 투표에는 본 교회 세례교인 전원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오늘 장로 선출에 나설 후보는 지난 2일(주일) 찬양예배 후 열린 장로후보 선정을 위한 제직회에서 후보대상자인 안수집사, 협동장로, 서무권사 중 공천을 받은 14인이다.

제직회에서 공천을 받은 제 6대 장로 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번생 임훈규 민순구 윤찬오 허희철 홍성주
- 이완형 김세재 박두영 이만규 전기섭 조정식
- 신용식 김영주

<각 후보에 대한 프로필은 3면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2편 6장 40조에 의하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

고 40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투표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이며 투표권

을 가진 한 사람이 총 선출 예정 인원에 해당 하는 후보자들에 투표할 수 있다.

탈북자 보호 위한 UN청원 서명운동

탑골 공원에서 1일 가두서명촉진대회

탈북자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이 6월 부터 전국으로 확산된다.

서울에서 열리는 가두서명촉진대회는 다음 달 1일(화) 오후 2시 서울 종로 2가 탑골공원에서 열리며 이날을 시발로 5일 (토)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서명운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탑골공원 서명 대회에 참여할 성도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이전까지 현지에 참석하

면 된다.

27일 현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난민촌을 설립운영하라는 내용의 일천만 명 가두서명운동에 약 2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 교회 청년회(회장 김민철)와 대학부(회장 황유석)는 지난 토요일(22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이미 가두서명을 펴기 시작했다.

대학부 · 청년부 · 미가엘 찬양시간 통합

말씀 선포 이후엔 각 부서로 이동 자체 순서 진행

대학 · 청년부의 찬양집회와 미가엘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시간이 다음 주부터 통합 진행된다. 또 말씀 선포도 동봉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그밖에 각 부서의 자체 순서는 찬양과 말씀선포 시간이 끝난 후 각 부서의 별도 집회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

교회는 기존의 중복된 각 부서간 활동을 통일하고 새 성전 시대를 대비한 청년층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부와 청년부 그리고 미가엘찬양팀의 집회 시간과 내용을 새로 조정, 시행키로 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대학부 찬양집회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찬양집회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실시되는 미가엘찬양팀의 찬양인도 시간이 모두 오후 1시 정각부터 40분 간 2층 예배실에서 통합되어 열리게 된다.

아울러 현재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미가엘찬양팀은 대학부 찬양부원, 청년부 찬양부원들을 합쳐 명칭 · 형태를 개편하고 새로운 찬양팀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찬양 인도는 현 미가엘찬양팀 소속 인원과 대학부 찬양대원, 청년부 찬양대원이 맡게 된다.

찬양집회에는 청년 · 대학부 회원 및 교회 내 모든 젊은이, 장년층 성도, 교회학교 소속의 초 · 중 · 고등부 학생 그리고 찬양집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다.

또 말씀 선포도 각 부서가 함께한 가운데 전하게 된다. 말씀선포 시간은 찬양시간이 끝난 후인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30분 간이다.

말씀은 이만일 전도사가 매달 둘째 주일에, 청년부와 대학부 지도 교역자가 나머지 주일에 교대로 각각 담당한다.

각 부서의 자체 순서는 찬양과 말씀 선포 시간 이후 각 부서의 집회 장소로 이동하여 진행하게 된다. 대학부는 찬양집회 후 4층 대학부실로, 청년부는 2층 예배실에서, 그리고 찬양인도지는 각 소속부서인 대학부와 청년부로 가서 이후 자체 순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집회 조정안은 다음 달 첫 주일인 6일부터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사야 강해

지역하는 유다 백성

이사야 22장 12-14절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의 소문이 들렸습니
다. 앗시리아가 북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이제
는 멀지 않은 시간에 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하는 위태로운 소문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들 앞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
성임에게도 종종 곤고한 일이 찾아옵니다. 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 하
여급 회개하며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함
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
님의 종 이사야는 "너희는 통곡 하고 애곡 하
며 머리 털을 뜯고 굵은 베를 띠라"는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
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13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유
다 백성들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회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
리에게 또 한 번 알려줍니다.

1. 회개의 눈물은 귀하다

지금 올면 장차 웃게 될 것이며 복이 있다
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눅 6:21).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
할 때, 자기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간절히 소원했습니다(시 56:8). 사람이 죄를
짓고서 죄를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
시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러나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위대한 사람이었
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온 사람
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
만한 마음과 뻔뻔스러운 옛 습관을 이제는 하
나님 앞에서 모두 털어놓아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
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겔 36:26). 하
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인
간의 마음이 만물 보다 악하고 더럽다고 말씀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2. 유대인의 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울리는 하나님의 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
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
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
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사 22:12-14)



이종운 목사

숨을 들고도 유다 백성들은 울지 말고 춤추며
놀자고 합니다. 회개하고 울어야 할 자가 울
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거역하
고 하나님을 격동케 한 것, 바로 이것이 유대
인의 죄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무시하고 하
나님의 심판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
다고 주장하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님 앞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울어야
합니다.

3. 애통하라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
다(마 5:4). 기쁨과 행복의 뿌리는 위로입니다.
위로 없는 기쁨과 행복은 뜻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30여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
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
꿀지어다"(약 4:9)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즐거
워하는 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갈지도 모
릅니다. 환난 날에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살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는 기회를 악용하

여 죄 짓는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고통스
러운 슬픔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슬퍼하
되 아픈 마음을 가지도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어 울면서 통곡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애통을 말합니다. 스스로 죄를 찾고 그 죄를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정
한 의미의 애통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피로
움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삶의 깊이를 알
게 됩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
람은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
이 얼마나 소중한 지도 모르며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탄식하므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6). 다윗은 애통하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졌습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진실한 친구를 얻게 됩니
다.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으로 위
로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 애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
해서도 애통할 줄 압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
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세상을 향하여서도 애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
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탈북자보호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나서

새로 얻은 가치있는 삶에 대한 통찰력

손재영(청년부)

“삶의 허무함을 느끼던 한 남자가 있었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남자는 우연히 같은 방을 쓰게 된 환자를 돕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난생 처음 자신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 남자는 자신이 느끼는 삶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무런 대가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몇 년 후 그는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자 많은 나이에 불구하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는 색다른 접근법으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자신은 순수한 열정과 소망으로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의

값진 삶을 살게 된다.”

얼마 전에 관람했던 어떤 영화의 줄거리다.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난 후 나의 심정은 이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느낀 감동과 흡사하다. 지난 주 토요일에 청년부와 대학부 회원들이 2인 1조가 되어 신사역, 영동시장, 강남역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벌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어 주었고 2천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에 동참했다. 북적대는 지하철 역에 들어가 서명을 받는 열심있는 대학부 후배들과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함께 하시기가 그리 쉽지 않았으려만 친히

본을 보여주신 선생님들... 서명운동을 펴는 동안 세상 문화 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교회 안에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동료의식을 갖게 되었고 북한의 탈북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더욱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순수하게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영화 속 남자의 헌신은 결국 자신의 삶이 가치있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처럼 서명운동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필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지, 또 얼마나 훌륭하게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실지 벅찬 기대와 감사로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하리라 다짐해 본다.

장로 후보



1. 이병생



2. 임훈규



3. 민순구



4. 윤찬오



5. 허희철



6. 홍성주



7. 이완형



8. 김세재



9. 박두영



10. 이관규



11. 전기섭



12. 조정식



13. 신용식



14. 김영주

NO.	이름	출생년도	교회 봉사	학력	직업	가족
1	이병생	1943	제직회서기, 소망부부감, 다락방장, 비전2020본부장	대학원졸	제향군인회 안보정책국장	박경희2 권사와 2녀
2	임훈규	1942	베들레헴찬양대 지휘, 중등부교사, 세미나봉사	대졸	(주)한진산업 전무	정경자 집사와 1남
3	민순구	1938	6교구장, 잔 사무국장, 세미나봉사, 서울교회 협동장로	대졸	자영업	이영희6 권사와 2남1녀
4	윤찬오	1938	유치부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다락방장, 세미나봉사, 모세 총무	고졸	자영업	홍제식 권사와 1남
5	허희철	1947	가브리엘찬양대 지휘, 다락방장, 성경대학 음악교실강사	대졸	(주)희승산업이사	이연숙 집사와 2남
6	홍성주	1946	중등부부감, 임마누엘, 베들레헴 찬양대원, 비전2020위원, 다락방장	대학원졸	청원정보고교 교사	여현진 집사와 2녀
7	이완형	1939	스데반회간사, 대학부부감, 다락방장, 베들레헴.시온찬양대원	대학원졸	한양여대 교수	박연순 권사와 1남 2녀
8	김세재	1950	새가족부부감, 베들레헴찬양대원, 제직회서기, 순례자편집위원	대학원졸	금화산업 대표이사	이운진 집사와 1남 1녀
9	박두영	1936	계정위원회 계수위원, 모세선교회 회장, 다락방장	고졸	성제산업 대표	전행차 권사와 2남
10	이관규	1948	베들레헴 찬양대원, 관리부, 바울5지회장		대용축산 대표	이순영 집사와 1남 1녀
11	전기섭	1949	고등부교사, 베들레헴찬양대원, 유년부부감, 다락방장	대졸	한국바이런(주) 대표이사	원영애 집사와 1남 1녀
12	조정식	1949	임마누엘, 시온, 베들레헴찬양대원, 유년부부감, 다락방장	고퇴	대원에너지 대표	김영식 집사와 1남 1녀
13	신용식	1952	가브리엘찬양대부대장, 찬양위원, 스테반회서기, 순례자편집위원	대졸	(주)르본 대표	김신영 집사와 2남
14	김영주	1940	스데반회총무, 현금계수위원, 베들레헴찬양대원	대졸	북한연구회 연구위원	이혜순 권사와 1남 2녀

“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주의 택하신바 되어 ...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행1:24, 25)

'99 홍해작전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발대식

'99 홍해작전의 행진이 6월 6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부터 시작된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홍해작전을 6·25 기념일이 포함된 6월, 특별히 현충일인 6일에 개전해 왔다. 올해는 6일이 주일인 관계로 새벽에 시작하던 다른 해와는 달리 저녁 5시 찬양예배 시 갖는 발대식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다.

'99 홍해작전 기간 중 특별새벽기도회는 7일(월) - 26일(토)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시

작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일곱가지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종윤 목사의 설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공부하게 된다.

오늘 배부되는 중보기도카드는 홍해작전 기간 중 매일 한 명씩 기도할 대상을 찾아 기도제목을 적고 그 기도의 응답받은 날짜를 적도록 되어 있다.

본부에서는 이 카드를 기도의 진보와 성

도의 교제를 위해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99 홍해작전 기도제목

1. 경건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게 하소서
2. 비전2020운동을 통해 민족 75%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수 있게 하소서.
3. 기독교교도소를 설립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사회를 비추게 하소서.
4. 탈북자 보호를 위한 UN난민청원운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5.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의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교회 갱신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6. 농어촌 100교회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소서.
7. 서울교회 성도마다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고 생활에 모범자가 되게 하소서.

99 홍해작전 "악에서 구하옵소서"(마6:13)

6월 6일(주일) - 6월 26일(토)

- ▶ 발 대 식 6월 6일(주일) 오후 5시
- ▶ 새벽기도회 6월 7일(월) - 26일(토) 새벽 5시
- ▶ 승전감사예배 6월 27일(주일) 오후 5시

- 주 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 행동강령: 1. 신행일치의 균형잡힌 삶을 살자.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자.
3. 그리스도의 몸되신 서울교회를 사랑하자.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2일(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신촌세브란스) 교직원 채플에서 설교.
- * 김춘기·장성은 성도(7교구 일산다락방)는 16일(주일) 특담.
- * 이민호·김희 성도(12교구 수지다락방)는 22일(토) 특담.
- * 장재영·김공숙 집사(9교구 금육다락방)는 27일(목) 특담.
- * 이은혜 양(11교구 김은규 집사 딸)은 99년도 서울시장배 골프대회 여교부 우승 및 제 6회 파맥스배 전국 중고연맹골프대회에서 우승.
- * 이번 주 식사는 박창희 집사·김계순 권

사가정에서 제공.

- * 고등부는 31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

■ 이사 ■

- * 안덕흠 집사·김모순 권사, 잠실 장미아파트로 이사(☎ 421-4054).
- * 임광식 장로·노영숙 권사, 가락본동 동부센빌로 이사(☎ 443-5059)
- * 김현주 권사, 번2동 주공아파트로 이사(☎ 987-3261).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오늘 찬양예배시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5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환영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된 새가족*

정애자 전인태 김영복 서영선 김지경 장혜영 최지현 양천계 이경자 전경호 고영돈 구윤희 이국민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분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이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2. 홍해작전을 위해
3. 새가족의 영적 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전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